

3월의 꽃샘추위 속에서도 봄소식이 전해지는 요즘, 남도에서는 갖가지 들꽃은 물론 동백, 매화, 산수유, 개나리 등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향긋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찻자리에도 꽃 한 송이를 올려 봄기운을 만끽해보자.



우리 사찰 모임

동도사 선다회

헌다의 자부심 봉사활동으로 회향

우리 차문화전통을 이어온 사찰에는 일찍이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차모임이 꾸려져 왔다. 수행의 방편으로써 뿐만 아니라 사찰행사 참여를 통한 결속 강화와 포교활동 등에 앞장서고 있는 사찰 차모임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3월 2일 통도사주지 현만 대웅전에는 꽃이 피었다. 통도사선다(禪茶)회 12기 수료식이 열린 이날 법당을 수놓은 꽃은 다름 아닌 선다회 회원들. 꽃보다 고운 빛깔의 한복으로 단장한 회원들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보궁을 향해 육법공양을 올렸다. 이날의 헌다는 1년 기초과정을 수료한 초보 다인들

진과 더불어 보궁한다. 부도헌다 등의 의식과 이론을 정립했다는 자부심은 선다회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1990년 2월 승가대학 중강이던 법해스님을 법사로 선다회를 창립한 이후 고증을 거쳐 사찰 헌다 의식을 정립해 나갔다. 처음엔 생소하기만 했던 사찰 다도를 제사, 법회 등에서 일반적인 사찰문화로 정착



40여 사범회 회원 다회 주축 부도헌다 등 의식과 이론 정립 고증 거쳐 사찰문화로 정착

시키며 사찰 헌다 문화의 함을 더했다. 이 같은 회원들의 자부심은 차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더 크게 확장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 보살계수계산담, 개산대제 등에 빠짐없이 차공양을 올리고 있다.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에는 통도사를 방문한 월드컵 조직위원들에게 한국 다도의 맛과 멋을 선사해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일년동안의 헌다회가 헌다를 하는 행사만도 대략 30여 차례에 이르기 통도사에선 없어서는 안될 신형단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부처님 오신날, 보살계수계산담, 개산대제 등에 빠짐없이 차공양을 올리고 있다.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에는 통도사를 방문한 월드컵 조직위원들에게 한국 다도의 맛과 멋을 선사해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일년동안의 헌다회가 헌다를 하는 행사만도 대략 30여 차례에 이르기 통도사에선 없어서는 안될 신형단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천미희 기자

화사한 봄 찻자리 꽃이 있어 더 좋아라



<한국의 다석화(茶席花)>를 펴낸 부산꽃예술연합회 허충순 회장은 “그동안 찻자리 꽃이라고 하면 무조건 일본 다도문화에서 들어온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남긴 시와 그림을 보면 차를 마시며 꽃을 감상한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일례로 조선 영조 때인 18세기 유충림이 쓴 <증보산림경제>에서 ‘가정에 준비해 두어야 할 기구들’ 중 ‘재실(齎室)안에 있어야 할 기구들’에 ‘꽃병(花瓶), 약연(藥研), 다관(茶罐), 다종(茶鐘)’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허 회장은 “중국 명나라 원경도(袁宏道)는 ‘차를 곁들여 꽃을 감상하는 것은 최상이고, 이야기를 곁들여 꽃을 감상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술을 곁들여 꽃을 감상하는 것은 최하이다’고 말했다”며 “그만큼 찻자리의 꽃은 조형미 뿐만 아니라 차의 정신과도 부합한다”고 말한다.

을에는 자기를 쓴다. 꽃병은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고 매화나 모란, 봉선화, 작약, 국화, 치자 등을 꽂는 것이 적당하다. 다만 국화꽃을 꽂을 때는 홀수가 되도록 하고 여러 색을 섞기보다는 한 가지 빛깔로 장식하는 것이 좋다.

화병 계절따라 재질 다양 매화, 모란, 국화 등이 적당 다실 정서 고려 강한 향 자제

꽃나무를 화병에 심는 분화는 오지그릇(도기)과 사기그릇, 집그릇, 돌그릇, 옥그릇 등에 매화와 동백꽃, 수선화, 석창포, 월계화, 파초, 난초, 연 등을 주로 가꾼다. 화병은 반드시 그늘과 벌이 번갈아 드는 곳에 두어야 한다.

꽃그릇을 고를 때는 모양이 안정되고 앉히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꽃의 빛깔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 또 내구성이 좋고 식물의 생리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깊고 구하기 쉬운 것으로 선택한다.

차실의 꽃꽂이는 인공적인 조형을 최대한 억제하고, 꽃의 종류는 한두 가지로 단순화하여 부담 없이 차실의 분위기를 꾸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차문화협회 정문자 이사장은 “찻자리 꽃은 꽃을 꺾어 인위적으로 기교를 배합하는 ‘꽃꽂이’ 과정에서 차실의 정서가 훼손되는 경우가 잦다”며 “조급이라도 더 차실의 정서에 접근하고 차의 정신과 접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배본(栽培本)을 그대로 찻자리 꽃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다만 꽃색이 너무 일색일 경우 조용해야 할 찻자리 정서에 어울리지 않고 가시가 있거나 잎이 너무 큰 야생화는 실내의 공간 균형을 깨뜨려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꽃향이 너무 강하면 차향(茶香)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수령 기자



찻자리 꽃 일본유래로 오해 탕레, 다레와 함께 중요한 위치 “조선시대 사찰문화의 근간”

한국차학회 김명배 고문 역시 “다도 수련에서 찻자리에 꽃을 꾸미는 일은 향 사르기, 탕레(湯禮), 다레(茶禮)와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소설가 정동주 씨는 자신의 저서 <한국 차살림>에서 “일본 초입자의 특징 중 하나인 꽃꽂이는 조선시대 사찰 문화를 근간으로 성립된 것이다”며 “조암차 선구자들이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대나무 꽃병, 넝쿨식물의 줄기를 이용한 꽃병 등을 직접 만들어 쓴 것은 모두 청빈한 조선 사찰 수행자와 서민들의 생활에서 발견해낸 것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찻자리 꽃은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 찻자리 꽃은 크게 병화(瓶花)와 분화(盆花)로 나뉜다. 꽃병으로는 동병(銅瓶), 은병(銀瓶), 옥병(玉瓶), 유리병 등이 있는데 봄과 겨울에는 구리 그릇을, 여름과 가

사진제공=허충순 <한국의 다석화> 담원 김창배 화백.

인터뷰

류용숙 회장



조다행사, 행다실기 등 알찬교육

“차는 나와 부처님을 이어주는 매개이며 수행과 포교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차의 세계로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선다회 사범회 류용숙(54) 회장은 회원들 모두가 ‘차맛이 흠뻑 든 다인’이라고 자랑했다. 조다행사, 다도학 이론, 불교교리강좌, 다도교전 강의, 행다실기, 찻자리꽃, 다식 만들기 등의 알찬 교과과정을 통해

차에 매료돼 10년을 훌쩍 넘긴 회원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선다회는 지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류회장은 “지금 부산에서 활동중인 사찰 다도회와 다인들 대부분이 선다회 출신이 많아 지회를 원하는 이들이 많다”며 “지역별 지회를 설립하고 활성화시켜 사찰 다도 문화 정착과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수의 가격표

상품명	재질(성분)	원사가공지	판매가격
국화1호	삼베100%	경북안동지방	1,515,000
국화2호	삼베100%	강원일부지역	1,395,000
국화5호	삼베100%	경남남해지방	1,249,000
국화7호	삼베100%	충남서천,홍성지방	950,000
특1호	삼베100%	중국	670,000
보성삼베	대마+저마	전남보성지방	1,450,000
남해삼베	삼베100%	경북남해지방	2,345,000
안동삼베	삼베100%	경북안동지방	4,300,000

윤달 3월 21~4월 20일 원하시는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주문 받습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潤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윤년중에 한달이 더므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 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 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 풍속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대,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성이 얼마남지 않은 집안 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만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되며 집안 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서 여성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금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입혀드린 후 후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 (2) 고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미한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인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 (3) 금년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울한을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되어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오.

☘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孝

서울시 중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대광수의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